

같은 여객선 다른 구조 ... 한국 수익 위해 '증축'·일본 안전 위해 '감축'

■한·일 여객선 구조변경 비교

선체 모습			
선박명	세월호	(과거)페리 나미노우에	(현재)페리 나미노우에
취항 시기	2012년 9월 일본서 증고 구입	1994년 8월 건조 2012년 9월 한국에 판매	2012년 9월 동일 모델 건조
승객정원	921명 (117명 증원)	804명	707명 (97명 감원)
선적 차량수	180대	180대	130대(50대 감축)
객실층수	3층(1개층 증축)	2층	2층
최대 객실정원	270명	140명	140명
외부 구조 변경 (복간색 표시부분)	연통 뒤 객실 3개층으로 증축	연통 뒤 객실 2개층	연통 뒤 객실 1개층으로 축소
특징		좌우 흔들림 방지 장치 장착	좌우 흔들림 방지 장치 좌우 측면 추진장치 등 장착

청해진해운, 노후 여객선 매입 객실·화물 적재용량 대폭 증설
일본 선사는 정원·규모 축소 ... 흔들림 잡아주는 장치도 장착

청해진해운 측은 일본의 한 선사로부터 18년 된 여객선을 할 값에 사와 객실과 화물 적재용량을 증설한 반면 일본 선사는 같은 크기의 여객선을 다시 건조하면서 승객 정원과 차량 적재 규모를 오히려 축소해 안전성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수익 늘리기에만 급급했던 청해진해운과 일본의 선사는 정반대의 행보를 취한 것이다. 복원력 상실의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너무나 다른 여객선 건조 방식이 새삼 조명받고 있다.

23일 일본 마루에 페리 주식회사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이 지난 1994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운항한 페리 나미노우에를 매입하자 곧바로 새 여객선을 기존 여객선과 같은 '페리 나미노우에'로 명명하고 가고시마항로에 투입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새로 건조된 여객선은 기존 여객선보다

세월호 인명 피해 상황

탑승 476명 구조 174명

실종 146명 사망 156명

※ 23일 오후 8시 현재

전장 즉 여객선 전체 길이는 같지만 폭을 2m 넓히고 승객 정원과 차량 대수 등 적재 용량을 대폭 줄였다. 기존 나미노우에의 승객 정원은 804명, 차량 대수는 180대였으나 새 여객선의 정원은 707명으로 97명, 차량은 130대로 50대를 각각 줄이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객실은 1층과 2층에만 배치되도록 했고, 승객과 차량, 화물을 모두 더한 여객선의 중량은 8072t이었다.

또 선박의 좌우 흔들림을 잡아주는 방지



“언니 오빠 살아 돌아오세요”

23일 오전 광주시 동구 용산동 애벌B 유치원생들이 유치원 담장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실종자의 무사 생환을 기원하는 내용을 직접 적은 엽서와 노란 리본을 매단 뒤 기도하고 있다. /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장치(AntiRolling Gyro), 좌우 측면 추진장치 등 특수장치까지 장착했다. 이는 일본정부가 지난 2009년 11월 발생한 아리아케호의 전도 사고에 따라 화물 및 여객선에 대한 안전성을 크게 강화하자 이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마루에 페리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회사)에 판 나미노우에와 지금(일본에서) 운행하고 있는 나미노우에는 다른 선박”이라며 “승객과 차량을 (과거보다) 적게 태운다”고 말했다.

반면 18년 동안 운항한 기존 나미노우에를 인수한 청해진해운은 이들을 세월호로 변경한 데 이어 객실 증설에 나서 승객 정원을 921명으로 늘렸다. 객실이 늘면서 내부 구조가 더 조밀해졌으며, 객실도 3개 층이 됐다. 이와 함께 현재의 페리 나미노우에의 가장 큰 객실은 104명만 수용하도록 돼 있으나 세월호 내 가장 큰 객실의 정원은 270명으로 하는 등 내부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

청해진해운은 이 마루에 페리로부터 페리

나미노우에만이 아니라 페리 아케보노도 들여와 이를 오히려 명칭을 바꾼 뒤 세월호와 같은 인천~제주항로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오히려 세월호와 쌍둥이 여객선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비슷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었다. 청해진해운 측은 세월호와 비슷한 증설 및 구조 변경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일본선사는 페리 아케보노를 판 뒤 안전성을 강화한 새 여객선을 건조해 같은 명칭으로, 페리 나미노우에와 같이 가고시마항로를 다니게 했다. 현재 일본에서 운항하고 있는 페리 아케보노의 승객 정원은 682명인데 비해 오히려 나미노우에는 937명에 이른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일본에서 노후 여객선을 들여와 객실 증설, 구조 변경 등으로 여객선의 안전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개조에 불만을 없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애들이 미안하다” 눈물의 조문

광주 금남로 YMCA·전남도청 등
광주·전남 곳곳 세월호 합동분향소 설치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합동분향소가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와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청 등지에 설치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3일 세월호 침몰 합동분향소를 전국에 설치하도록 안전행정부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가족과 협의해 지자체별로 시·도 청사나 체육관 등 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5일 시민단체협의회 주관으로 YMCA 등지에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는 24일 전남도청사에 분향소를 설치한 뒤 정부 방침에 따라 22개 일선 시·군에도 분향소를 설치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1차의 뜨거운 감동 그대로! 혁신도시의 중심을 누리는
프리미엄 브랜드타운을 완성하다!
광주·전남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센트럴2차**

광주·전남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근생·상가 공급 예정

메가타워 2차, 오피스텔 근생·상가
센트럴 1차, 단지내 상가
센트럴 2차, 단지내 상가

전세대 4-BAY 혁신설계
중소형 대단지 아파트
단지 앞 상업지와 수변공원
중흥S-클래스 브랜드 프리미엄
16개기반 이전의 미래가치

4월25일 오픈

문의 062) 364-0001 주택전시관 상담청구 운영중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중소형 명품 대단지
중흥S-클래스 센트럴2차

광주·전남혁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

84㎡A, 84㎡B, 72㎡ 총 721세대 중소형 아파트

문의 062) 364-0001